

코소보 독립선언과 국제관계 전망

1. 코소보 독립선언

가. 코소보 독립운동의 역사 및 경과

□ 세르비아 성지에 자리 잡은 알바니아인

- 코소보 지역은 14세기 번성한 중세 세르비아 왕국의 중심지역이며, 세르비아 정교회의 교구가 최초로 생긴 곳으로 세르비아인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의미를 가짐.
- 14세기 말 무력으로 코소보 지역의 새로운 지배세력이 된 오스만터키가 이 지역의 이슬람화를 위해 알바니아인들의 코소보 이주를 장려함에 따라 정교도인 세르비아인과 무슬림인 알바니아인들 간의 갈등이 시작됨.
- 점차 코소보 인구의 다수를 점하게 된 알바니아인들은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1975년에 가서야 자치정부를 수립함. 이후, 세르비아인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1981년 코소보 내 알바니아계는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게 됨.
 - 1차 세계대전 이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에 합병되자 두 차례에 걸쳐 독립 전쟁을 벌이지만 실패함.
 - 2차 세계대전 이후, 유고사회주의연방공화국 내 세르비아의 한 주(州)로 편입되었으나, 1970년대 들어 세르비아의 강성으로 유고연방 존속이 위협 받자 연방정부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코소보의 자치권을 확대시킴.

□ 코소보 독립선언의 최대 후원자는 미국과 EU

- 2005년 10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코소보 지위 결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수년간 성과 없이 찬반 양측의 입장 고수가 계속되자 미국과 EU는 UN 밖에서의 문제 해결을 주장함.
- EU가 코소보 독립시 치안확보를 위한 1,800명의 경찰 및 사법요원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으로써 코소보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원하자, 2008년 2월 17일 코소보 의회는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함.

□ 세르비아의 반발

-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는 국가에 파견된 자국 대사를 모두 소환하는 한편, 코소보에 연결된 전기 및 수도 공급 차단 등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함. 단, 군사 행동은 보복 조치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시사함.

나. 국제사회의 엇갈린 반응

□ EU 회원국별 상이한 의견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강대국들이 코소보 독립을 적극 지지하고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자국내 분리주의 문제를 안고 있는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로스, 슬로바키아는 코소보 독립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음.
- 각국 언론들은 코소보의 독립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찬성 의견과 그간 코소보 재건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EU의 경찰·사법요원 파견 결정이 향후 코소보 지역에 미치게 되는 영향도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음.

□ 러시아-미국의 상호 견제

- 러시아는 코소보 독립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미스러운 선례이고, 코소보 독립 인정은 유럽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코소보 독립 지지를 비판하고 있음.
- 미국은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코소보의 독립을 통해 발칸반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슬라브·정교회 전통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오랜 동맹국인 세르비아의 세력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임.

□ 발칸반도국의 양분

- 발칸반도 내 각국 세르비아계 정당들은 코소보의 독립에 반대하는 반면, 알바니아계 정당들은 코소보 독립 선언을 알바니아인에게는 물론 발칸지역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음.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세르비아계 스르프스카 공화국은 연방의 코소보 독립 승인에 반대하고 있으나, 인구의 25%가량이 알바니아계인 마케도니아는 코소보 독립을 지지하고 있음.
- 한편, 상당수의 세르비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몬테네그로(세르비아계 30%, 알바니아계 7%)는 당분간 EU의 구체적인 대응을 기다릴 것으로 보임. EU 회원국인 불가리아도 세르비아의 코소보 독립 부인 입장은 이해하지만, 주변국의 반응을 좀더 지켜볼 것이라는 태도임.

□ 유럽을 넘어선 국제적 갈등

- 대만 및 소수 민족들의 독립문제에 대해 예민한 중국 정부는 코소보의 독립 선언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대만이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자 양측간 갈등이 촉발됨.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도 코소보 독립에 비판적인 입장임.

- 그루지아 내 남(南)오세티야 자치공화국과 압하지야 자치공화국은 코소보 독립선언 이후 러시아 의회, 독립국가연합(CIS) 및 유엔에 자국의 독립 인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음.
- UN 안전보장이사회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2. 코소보 및 주변국 전망

□ 코소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시급

- 독립선언 이후 코소보는 아티사리(Martti Ahtisaari) UN 코소보 특사가 2007년 제시한 계획에 따라 EU 관할 하에 독립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동 계획에 따르면 코소보 독립은 독립선언 후 120일의 과도기간 (transitional period)을 거쳐 완성됨.
 - 그러나, 당시 세르비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 계획의 법적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코소보 독립의 법적 근거는 불명확한 상태임.

<코소보 일반 정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80만명 ~ 240만명 추정 ● 수도: 프리스티나(Pristina) ● 언어: 알바니아어, 세르비아어 ● 주요자원: 석탄, 납, 아연, 철, 아연, 크롬, 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 유로화 ● 종교: 이슬람교, 기독교 |
|--|--|

- 잦은 정전, 열악한 도로정비 상태 등 내전기간 동안 파괴된 사회기반시설의 복구가 미흡하여 경제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대외무역도 세르비아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적 독립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코소보 정부는 갈탄 화력발전소(40억 달러 규모) 건설을 위한 공개 입찰을 준비 중이며, 국제기구의 대규모 지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2007년 UN지원 예산: 2억 2천만 달러).
- 한편, 풍부한 노동력 및 갈탄·아연 등 광물자원 보유량이 상당한 점은 코소보 경제성장의 잠재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임.

□ 세르비아 국가신용도 등급 하락 가능성(단기)

- 코소보 독립선언 직후, S&P 및 Fitch는 세르비아의 국가신용도 등급(BB-)에 즉각적인 변화는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향후 등급 하락 가능성에 대해 시사함.
 - 유럽국가와의 갈등으로 EU 가입절차 진행이 지연 또는 무산되거나, 세르비아 연정 내 친EU-민족주의 대결 구도²⁾가 심화되어 향후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 세르비아의 국가신용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 Fitch는 훌륭한 인적 자원 보유를 세르비아의 강점으로 분석하는 한편 1인당 국민소득이 BB 등급 국가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인 점을 밝히고 있지만, 코소보 지역을 둘러싼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을 감안하여 BB-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음.
- 반면, 코소보 독립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세르비아의 국가신용도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 코소보 독립은 세르비아의 공적채무 부담³⁾을 경감(코소보 지역 공적부채 규모: 12.5억달러) 시키고, 정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EU 안정제휴협약(SAA) 체결 추진이 가속화된다면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 등으로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2) 2008. 2. 3일 세르비아 대선 결과 친 EU 성향의 보리스 타디치(Boris Tadic) 대통령이 12만표의 근소한 표차로 재임에 성공하였으나, 민족주의 성향인 야당 후보 득표율도 48%에 달함.

3) Fitch 추정 세르비아의 공적채무는 2007년 말 GDP의 31%에 달함.

□ 옛 유고연방 지역의 추가 분열 가능성

- 민족 문화와 종교가 각기 다른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는 1990년대 초 구 유고연방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가 독립함으로써 7개의 독립국가가 구 유고연방 지역을 구성하게 되었음. 이번 코소보 독립이 8번째 독립국가 탄생으로 이어질 경우 여타 자치지역의 추가적인 분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마케도니아와 관련하여 Fitch는 2001년 내전 이후 안정적인 정세가 유지됨에 따라 지역분쟁 문제가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사안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코소보 독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케도니아 내 알바니아계 소수민족 문제가 지속적 관찰이 요구되는 정치적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마케도니아는 1991년 9월 국민투표를 통해 구 유고연방으로부터 평화적으로 독립하였으나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25%를 알바니아인들이 차지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알바니아계 반군과 마케도니아 정부군간 내전을 겪었음.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는 세르비아인이 중심이 된 스프스카 공화국, 보스니아 이슬람교도와 크로아티아인들로 이뤄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의 1국가 2체제로 이루어져 있음. 스프스카 공화국은 오래전부터 코소보가 독립할 경우 자신들도 연방에서 탈퇴하여 세르비아와 합병해야 한다는 대(大)세르비아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코소보 독립선언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보스니아 지역은 이슬람교도와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가 뒤섞여 있어 구 유고연방이 붕괴되자 심각한 민족간 갈등이 표출되었으며 3년 8개월에 걸친 내전을 겪었음. 이후 NATO군과 미국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Dayton 평화협정을 통해 1995년 11월 현재의 연합 체제가 탄생하였음.

